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 재 희(영남대학교 석사과정) · 이 지 민(영남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상담현장에서의 목표설정과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D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47명으로, 중학교 2학년 232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215명이었다. 설문지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황윤경(1996)이 수정한 사회적지지척도 24문항, Betz와 Voyten(1997)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를 이은진(2001)이 변안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 24문항,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척도 47문항으로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9.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Cronbach's α , t-test,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주효과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대체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의 자율성, 결정성, 확신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은 목적성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물질적지지, 목표선택은 자율성에 51%,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은 목적성에 15%, 자기평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은 결정성에 51%, 자기평가, 목표선택, 문제해결은 확신성에 대해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학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발달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행동화되며, 청소년에게는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진로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상담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개입과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